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미 법적으로 아동의 부모로 인정된 청원자의 입양을 법원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모든 부모는 법률에 따라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나라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법원이 이미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모인 청원자들에게 단지 그 이유로 아동 입양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3999/A.460)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생 증명서에 성명이 없거나, 동성 커플, 대리모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이미 자녀의 부모로 인정된 경우 입양을 거부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법률에 따라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나라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새로운 보호 제도는 모든 가족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법정에서 부당한 장벽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전역의 아이들을 위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제공하는 수많은 동성 커플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이 커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법률은 저와 같은 성소수자(LGBTQ) 가족에게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슬프게도 모든 곳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는 주법에서 이미 그들을 자녀의 법적 부모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생물학적인 부모가 모든 뉴욕 법원에서 입양 절차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양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주 밖에서 여행하거나 이주하는 부모들에게 가족들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중대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Velmanette Montgomery** 상원 의원, **Amy Paulin** 하원 의원께 감사드리며, **Cuomo** 주지사의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들은 이미 입양 청원을 승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원서가 거부되어 동성 커플에게 놀라움과 스트레스를 주는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뉴욕 및 기타 관할권 모두에서 부모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보장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배우자는 아이의 부모로 추정되지만, 동성 커플은 뉴욕주를 넘어 이동할 시 비생물학적인 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법적으로 불안정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뉴욕의 입양은 다른 관할권에서도 존중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가족 구성원이 어디에 있든 두 부모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현존법에 따라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아동의 부모인 청원자에게 관례적으로 입양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때때로 결혼한 동성 커플의 입양을 거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입양 청원이 청원자의 혈통 관계가 이미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근거로만 거부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커플의 입양에 대한 접근이 향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기존 법을 성문화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